

$$(3 + 38 + 44) \div 3 = 2$$



정두환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부장

웬 뜬금없는 방정식을 제목으로 달아놓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더더욱 초등학교생이라도 쉽게 풀 수 있는 연산 문제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답을 적어놓았으니 말이다. 혹 이 문제의 답을 ‘은(銀)’ 이라고 적어놨으면 고개를 끄덕이려나.

물론 이게 수학문제라면 더 따질 것도 없이 오답이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문제라면 얼마든지 정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불과 며칠 전 새벽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맞다.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경기 얘기다. 글머리에 적어놓은 수식의 괄호 안은 대한민국 선수들의 5,000m 세계 랭킹이다. 이승훈(3위) 선수가 그나마 톱 클래스의 실력을 갖추고 있을 뿐 김철민은 38위, 주형준은 44위로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에서도 하위 그룹에 속한다. 그런 세 명이 모여 준준결승과 준결승에서 상대팀을 압도한 후 중장거리 메달리스트로만 팀을 꾸린 네덜란드와 결승에서 맞붙어 중반까지 양보 없는 팽팽한 경쟁을 펼쳤으니 언뜻 봐도 참 알 수 없는 종목이며, 그들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따낸 메달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매력에 푹 빠진 이유는 간단하다. 탁월한 기량을 갖춘 한 사람이 그보다 훨씬 기량이 떨어지는 나머지 두 명을 배려하며 서로 밀어주고 호흡을 맞춰 이뤄낸 은메달이니 말이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 아닐까.

며칠 밤 잠을 설쳐가며 손에 땀을 쥐고 때론 환호하며, 그리고 더 많은 결과에 아쉬워하던 올림픽 열기도 며칠이 지나면서 다소 가라앉은 느낌이다.

하지만 대회 막판 열린 남자 팀 추월 경기 결과는 또 다른 면에서 필자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경기에서 보여줬던 배려와 인내, 공생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는 너무 멀고 추상적이어서다.

소통과 공감.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기 위해 가장 절실한 가치다. 날로 심해지는 개인의 소득 격차, 대기업과 중견·중소

기업 간 갑을 관계, 청년층 실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낳고 있는 크고 작은 세대 간 괴리와 갈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해 보이는 게 없다.

정부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대외적으로는 소통과 상생을 천명하며 이른바 ‘경제 민주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의지와는 달리 오히려 실제로는 정책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며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지경이다.

건설·부동산 분야 역시 내부적으로는 첨예한 계층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제로 발표한 월세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나타난 혼란 역시 그 이면에는 계층 간 갈등이 존재한다. 그동안 치솟는 전셋값에 허덕이던 세입자들로서는 다만 얼마라도 소득공제를 통해 되돌려 받게 됐으니 반길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집주인들은 고스란히 자신의 임대소득이 노출돼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됐으니 불안감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들로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다주택자를 건전한 시장 참여자로 봐야 한다’며 주택구입을 권장하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것처럼 보이니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문제다.

더더욱 세금이란 게 어느 한쪽의 부담을 줄여주게 되면 다른 한쪽에서 줄어든 만큼 거둬 들임으로써 보전하는 구조이다 보니 집주인들로서는 “내 돈 빼서 세입자 주머니 채워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반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치솟는 전셋값 탓에 임대인을 ‘서민 돈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자’로 인식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좋지 않던 두 계층 간 괴리는 깊어질 대로 깊어지게 생겼다.

사실 모든 사회적 갈등이 그렇듯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이에 따른 임대소득자의 과세 및 세원 노출문제 역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선을 그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다. 전셋값이 치솟는 게 개별 시장 참여자들의 문제가 아닌 탓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정서로는 이 갈등을 풀기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정신치료 상담을 위해 사용하는 성격유형 검사법으로 MBTI라는데 있다고 한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성격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쿡 브릭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것이다. 사람의 성격을 4가지 지표로 분석, 에너지 방향에 따라 외향형(Extraversion)과 내향형(Introversion), 사고형(Thinking)과 감정형(Feeling), 판단형(Judging)과 인식형(Perceiving), 감각형(Sensing)과 직관형(iNtuition) 등으로 나눈 후 조합에 따라 모두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유형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유럽 등 서구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ISTJ(내향, 감각, 사고, 판단)형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다양성 보다는 통일성, 일관성, 규범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분석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유독 우리 사회는 나와 다른 남, 차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뿌리깊다. 오죽하면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 참는다’고 할까.

어차피 진보를 배제한다면 사회적 가치의 배분 문제는 한쪽의 이익이 늘면 상대적으로 누군가의 이익은 줄거나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다. 모두가 최상의 이익을 향유할 수는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서로 한발씩 물러나 조금 덜 이익을 봄으로써 상대방이 좀 더 손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 세 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서로 모자란 점을 보완하면서 객관적 전력의 한계를 딛고 당당히 올림픽 시상대의 두 번째 자리에 나란히 올라서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말이다. 🌈